

編者が 이것을 拔萃할 때의 錯誤로 보여지는 若干의 漏落과 數字의 誤植이 보일뿐이며 簡易集에 所收된 簡易題詠의 自筆本文이 바로 이 畫冊에 쓰여진 것이었음을 여기에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鶴林正은 仁宗元年乙巳一五四五年生 그의 字는 秀吉 號는 駱坡、駱村 鶴麓이라 하며 青城君 傑의 子로서 그의 子 虛舟과 함께 宗室出身의 父子名畫로서 이름을 떨친 선비였다.

註

① 聽竹畫史——南泰階——鶴林之畫枯淡之中有情趣高古之中有色態十分鍛鍊十分洞洗無一點雞踈氣比金禩有過而無不及

② 燃藜室別集——李肯綯——鶴林正畫品孤高蕭散兼工人物牛馬翎毛而山水則無聞

③ 崔筮——字立之號簡易堂通川人嘉靖己亥生明宗代文科壯元刑曹參判卒年七十四性清高簡貴仁祖朝刊行遺作簡易堂集

④ 洪斯文——名遵字師古號槐陰南陽人司成仁健之子嘉靖丁巳年生宣祖己卯進士一五七九 宣祖二十三年庚寅(一五九〇)及第副承旨工曹參議成川府使等을 歷任

鷲棲寺의 塔·像과 石燈

——新羅五岳調査記(其六)——

鄭 永 鎬

지난 二月 二十일부터 一週日間 新羅五岳調査團에서 太白山地區 第二次 調査가 있었는데 筆者도 그 一員이였기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奉化郡의 鷲棲寺를 現存 遺蹟遺物을 中心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奉化邑內에서 榮州郡 浮石面 行車道로 物野面 北枝里를 지나 皆丹國民學校에서 皆丹一里 洞里골짜기로 잡아들면 멀리 東쪽으로 文殊山上峰이 보이는데 (標高一、〇六六m) 鷲棲寺는 이 山頂上에 가까운 八五〇m 高地에 位置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寺境에서 奉化、榮州、安東地區가 眼下에 展開되며 東峰을 넘어서면 春陽面과 太白山周圍 諸峰을 멀

리 바라 볼 수 있다. 行路는 邑內에서 東便으로 十二km (皆丹國民學校까지) 徒步로 約八km 溪流를 따라 올라간다. 新羅代의 創建이라는 바 當代의 石造物이 數基 遺存하며 木造建物로는 大雄殿과 山神閣外寮舍一棟이 있을 뿐 六·二五의 慘禍를 입은 痕跡이 歷歷하다. 寺境에 이르면서 雄大한 石築을 높게 바라 볼 수 있으며 그 위로 石燈과 大雄殿 그 뒤 또한 築臺위에 石塔과 山神閣이 보인다. 圓座의 柱礎石이나 물딩을 刻出한 長臺石은 處處의 層階로 使用되거나 或은 放置되어 있다. 現在 이곳에는 住持一名外에 俗人二名이 從事하고 있을뿐 찾아드는 客들도 別로 없

一、三層石塔

는 閑寂한 곳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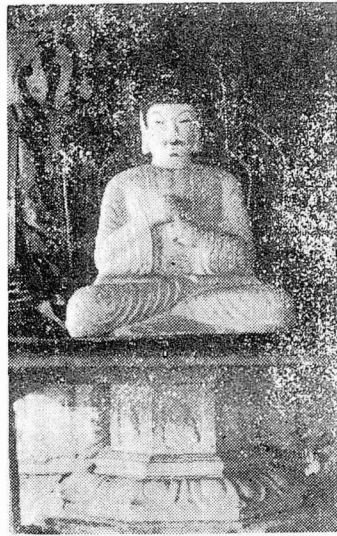
原位置라고 하는데 前任住持 崔鶴松(四〇歲)氏의 말에 依하면 「오래前에 破塔이 되어 放置했던 것을 一九五二年(約十四年前) 六·二五事變後 共匪들을 討伐한 뒤라고 한」에 現狀態로 再建한 것이라 한다. 現在는 二層塔身까지 올라 놓았으나 屋蓋石과 露盤들이 落下되어 雪中에 묻혀 있음을 보아 解冬後 塔材를 收拾하면 더욱 原形에 가까운 復原이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現在의 基壇은 中央 撐柱 하나가 刻出되고 兩隅柱가 있는 通式의 上層基壇뿐인데 本來부터 單層基壇이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下基가 破損되어 再建時에 上基만을 세웠는지? 이것도 解氷後의 再調査에서 밝혀야 될 것이다. 基壇甲石에는 副椽이 있고 上面에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各層의 屋身은 一石으로 兩隅柱가 刻出되었으며 屋蓋石의 받침은 四段式이고 上面에 二段式의 角形받침이 있어 그 위 屋身을 받고 있는데 落水面의 傾斜나 轉角의 反轉은 羅代의 典型的인 曲線美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 石塔의 建立年代에 對하여는 過去 이 石塔內에서 發見된 舍利石盒①이 現在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어 이 遺物에 陰刻된 銘文에 依하여 「大 唐咸通八年建」——新羅景文王七年(八六七A、D)에 建立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點에서 이 石塔은 비록 完形이 아닐지라도 建立年代가 뚜렷함에서 各部樣式에 있어 新羅下代의 基準을 들 수 있는 貴重한 遺物

로 보존해야 될 것이다. 實測値는 cm

基壇高 六一 甲石幅 一四六 初層塔身高 五五 初層屋蓋長 九一
"幅 一六 "厚 一三 "幅 六四 "上面의 口徑
長 五八、二層塔身高 一六 露盤高 二二 이다.
五三 "幅 五〇 "幅 二六 이다.

二、石造毘盧舍那佛坐像

大雄殿內 西壁쪽에 東向으로 奉安하였는데 現在가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다. 光背는 木造이고 臺座는 花崗石으로 上、中、下臺가 完全히 具備



되어 있는데 坐像은 白粉으로 덮혀 있고 臺座는 佛壇 밑이어 서 彩色을 하지 않아 多幸이었다.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眉間에 白毫는 없으며 兩耳는 짧으나 三道

가 돌렸고 兩眼과 口、鼻등이 또렷하여 相好는 圓滿하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양쪽으로 流麗하게 흘러 무릎을 덮었고 앞자락은 波狀을 이루고 있으며 臍前에는 袿衣의 結帶가 보인다. 手印은 毘盧舍那佛의 通印인 智拳印이다. 臺座는 下臺와 三角側面에는 眼象內에 唐獅子 一座씩을 陽刻하였고 (二面만 調査可能하였음) 上面一段의 角形받침위에 複瓣 八葉의 伏蓮石이 있는데 그 上面에 높은 괴임위의 四分圓물딩과 角形받침으로 中臺를 받고 있다. 中臺石은 八面마다 縱長形의 眼象內에 坐像一軀씩을 陽刻하였는데 二面은 合掌像이고 他六面은 供養像이며 이들은 모두 蓮華座와 圓形頭身光을 갖추었는데 바 이러한 眼象과 坐像들의 彫刻手法은 慶州三溪溪의 石造如來坐像의 下臺에서 볼 수 있는바라 할 것이다. 上臺는 下面에 낮은 角形과 圓弧의 괴임이 있으며 上面은 圓形으로서 重瓣仰蓮인데 外側은 瓣內에 花紋이 있고 內側은 無紋單瓣이다. 坐像背面에는 어깨와 무릎으로부터의 衣紋이 있다. 光背는

近年의 新造이나 頭身光 및 周緣의 火焰 등 表現手法과 彩色意匠이 注目된다 할 것이다. 佛像의 相好나 衣紋 그리고 臺座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新羅下代의 造成으로 推定됨에서 前述한 石塔의 建立과 같은 年代로 보고자 한다. 實測値는 (cm)

坐像高 一〇八 坐像肩幅 五四 下臺高 四二 中臺高 二六·五 上臺徑頭高 三五 胸幅 四一 下臺一邊長 四七·五 中臺幅 二四·五 上臺厚 一〇〇 台座高 九六 總高 一〇八九六 二〇四

三、石燈

現住持 朴知性(三〇歲)氏의 말에 依하면 再昨年(一九六四年)에 破材를 모아 現位置에 再建한 것이라 하는데 本來의 位置는 前述한 三層石塔의 바로 앞이었다고 한다. 現在는 大雄殿 前庭 石築마로 위에 세워졌는데 火舍石에 龜裂이 있고 竿柱가 若干 切斷된 것 外에는 各部가 完全하다. 方形의 地臺上面에는 四分圓의 물딩이 있고 그 위에 下臺를 놓았는데 四方側面에는 各二區씩의 眼象이 있으며 그 위의 八角伏蓮石은 八角마다 反轉된 귀꼴으로 彫飾하였고 二段의 받침으로서 竿柱를 받고 있다. 八角竿柱는 1/3程度가 缺失되었고 그 위 上臺仰蓮石에 八角火舍石이 놓여 있다. 火舍石은 四面에 窓口가 있으며 그 위의 八角屋蓋頂上에는 寶蓋와 相輪部材가 놓여 있다. 火舍石에 彫飾이 없는 素林端雅한 石燈으로서 榮州浮石寺 石燈과 같은 系譜로 보이며 方形下臺나 側面眼象、귀꼴 등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新羅下代에 屬하는 石燈으로 생각됨에서 前述한 三層石塔과 같은 年代의 建立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實測値 (cm)는 現總高 二一〇 下臺方形一邊長 七九 竿柱 現高 四六·五 地臺石一邊長 九五 八角 "一邊長 一四 "一邊長 九·五 上臺厚 一五·五 火舍石高 五三 火窓口縱 三三 屋蓋厚 三〇 寶蓋厚 一三·五 "徑 六〇 "一邊長 一九 橫 二二 "一邊長 二二 "一邊長 一八 이다.

以上 또렷한 遺物 몇가지를 紹介하였으나 光背片 등 많은 部材가 散亂한데 이번 調査時에는 暴雪로 充分한 檢討와 各種石材의 探索을 하지 못하였었다. 앞으로 再調의 機會를 갖고 完全히 收拾하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嚴冬雪寒에 同苦同樂하며 遺物의 索出、調査、實測 등에 많은 協調를 준 同人 文甲洙、尹容鎭、李浩官、金和英、諸氏와 現地案内를 맡아 주

신物野面北枝里 國民學校長 申萬淳先生에게 深深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註

① 博物館陳列品圖覽第八輯을 參照함: 이 石倉은 蠟石製로서 高九·五cm 胴徑十一·七五cm 인데 外面에 十六行으로 全七四字의 陰刻銘이 있어 이 石塔의 建立年代를 알 수 있는바라 하겠다.

② 이 坐像은 現在 景福宮內 文化財管理局 中央「홀」에 移安되어 있다

瑞山 普願寺址의 調査

李 殷 昌

瑞山서 唐津으로 通하는 道路邊인 雲山面所在地에서 山路를 잡아들어 溪流를 따라 東南行하기를 約三키로쯤이면 寺址가 있는 龍賢里 入口에 나서게 된다. 左右에 峻拔한 山峰이 여울에 臨迫하여 깊은 溪谷을 이루고 병풍 같은 이 溪谷을 지나면 龍賢里盆地가 열리는데 곧 俗名 장당이 (講堂里)이다. 이 小盆地는 四面이 山岳으로 둘러싸이고 그 가운데로 清流하는 溪水가 北流하는데 溪流의 東便과 西便으로 約一萬餘坪一帶가 伽藍址로 되어 있다. 이 寺刹이 普願寺인 바 高麗初의 創建으로 法印國師에 依하여 繁盛大昌하던 大伽藍이다. 筆者는 이곳 普願寺址 伽藍모습과 또 金堂址附近에 散在된 石片等에 關心을 두고 調査한 바 이를 通한 考察을 이에 略述코자 한다.

寺址에는 伽藍遺構가 散在하고 있으나 攪亂이 極甚하여 元來의 伽藍 配置狀況을 알길이 없다. 多幸히 文獻이 있어 既往의 伽藍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니 곧 光海君十一年(萬曆己未)에 吏曹正郎 韓汝賢의 撰한 湖山錄 佛宇條 普願寺伽藍記에

「講堂寺有二名 一曰 普願寺此則舊名 一曰 講堂寺此則新名, 寺前清川白石雪餘游泳, 法堂則二層高閣, 上出雲霧, 其上有白黑色鳩鴿百餘, 朝夕飛來飛去, 浮屠殿庭畔, 有古碑, 宋太祖朝所立, 其高三丈, 其字蠹蝕不可

讀, 羅漢殿短峽中, 有蒼檜一株, 何人所植, 老幹扶疎翠蓋亭亭, 往往雲雷生其上云云」

하였다. 이에 依하면 主殿인 二層法堂(金堂)과 이밖에 浮屠殿, 羅漢殿, 塔碑 등이 配置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寺址와 關聯시키어 살펴보면 개울(溪流)을 가운데에 두고 東便 平坦한 곳에 幢竿支柱(寶物一〇三)가 있으니 이곳이 境內入口요 다시 西北쪽 溪流邊에 石槽(寶物一〇二)와 建物址가 있으니 이곳이 僧房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이들 幢竿支柱와 石槽를 右便에 두고 西行하면 溪流에 이르러 架橋址로 推測되는 石築部分이 나오는데 이 다리(橋)를 通하여 中央伽藍에 들게 되었다. 다리를 건너 中門址(推定)를 거치면 正前에 五層石塔(寶物一〇四)이 서 있다. 五層石塔의 正後인 西쪽에 金堂址(遺墟)가 있다. 다시 金堂址後面인 西쪽으로 法印國師寶乘塔(寶物一〇五)과 同塔碑(寶物一〇六)이 있다. 또 金堂址左右處인 側面에도 建物址가 있으니 이는 「金堂」外 諸附屬伽藍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遺址 現況과 湖山錄의 伽藍記에 보이는 二層高閣法堂·浮屠殿·古碑·羅漢殿等과 거의 一致함을 알 수 있다. 却說 普願寺 金堂은 湖山錄에 보이는 二層高閣法堂인 바 現今은 金堂으로 認定되는 遺址가 五層石塔 正後인 西쪽에 있을 뿐인데 이 金堂址와 五層石塔은 東西一直線上에 配置되어 있어 이른바 東向伽藍①의 例를 보이고 있어 注目된다.

金堂址는 五層石塔에서 約二十三m 西에 位置한 바 地形關係로 正確한 測量을 할 수 없으나 大略 가로 (橫)十八m 세로 (縱)十六m 程度의 高臺基壇이 認定되는 바 모두 攪亂이 甚하여 原形을 분간하기 어렵다. 다만 金堂址와 五層石塔等 附近에 石階隅石片·基壇石片·礎石·佛座臺址臺石·佛座臺仰蓮石 등이 殘存하고 있어서 이를 通하여 옛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 石階隅石: 五層石塔附近에 石階隅石 一個가 다른 石造物殘片과 같이 殘存하고 있다. 隅石은 一個石으로 되었는 바 地臺石·童子柱·欄干이 彫刻으로 表示되었다. 곧 隅石 下部가 側面으로 突起하고 그上面에 直角과 菱角으로 流麗하게 層節을 刻出하여 地臺石의 形式을 取하